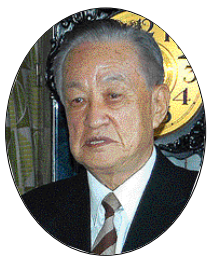
중국 동북지방과 한민족의 문화권文化圈 (中)



權 兌 遠
충남대 명예교수

8천년 전을 전후한 홍산紅山 문화권의 흥륭와興隆窪 문화유적을 비롯하여 요서遼西지방 일원의 우하량牛河梁 및 동산취東山嘴 유적, 요동지방 여순구旅順區의 장군산將軍山 · 곽가촌郭家村 및 감정자구甘井子區의 강상묘崗上墓 등은 편년이 8천년 전에서 4천년 전에 이르는 적석총積石塚을 기본으로 한 석총문화권(Cairns)에 속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국시대戰國時代 말에서 한대漢代에 이르기까지 벽돌 무덤인 전실묘塼室墓에서 산동지방 일원의 화상석畵像石을 특징으로 한 석실묘가 나오기까지 석총계 무덤은 홍산紅山 문화를 중심으로 발전한 요서遼西 · 내몽골 · 요동 지방 및 예맥 문화권인 서단산西團山 문화와 고구려의 적석총으로 알려진 중국대륙 동북지방과 한반도에 널리 전파되어 있다.

가령 황해도 황주군 침촌리沈村里 고인돌의 경우 석관묘石棺墓와 동일하게 판석으로 석관을 지하에 조성하여 두고 개석蓋石은 지상으로 노출시키고 있다. 따라서 고인돌인 지석묘는 그 구조가, 실은 매장시설로서 지하의 석관을 중심으로 막돌로 쌓아올리고 지상에 4개의 벽석을 세워 개석을 올려놓은 상자 모습의 석관묘 형식으로 만든 것이다. 중국의 왕사주王嗣洲와 여남철呂南喆은 요동지방의 대개석묘나 후일 고구려의 기단基壇 계단식 적석총 역시 홍산문화권에 있는 석총문화에서 발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한반도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고인돌과 더불어 청동기가 출토된, 부여 송국리의 깊은 구덩이에서 판석으로 조립한 석관묘가 나왔으며, 같은 무렵의 것으로 대전시 괴정동 구릉지에 소재하는 석관묘 등이 있다. 아울러 길림吉林과 장춘長春을 중심으로 길림성 동남부에서 송화강松花江 상류에, 4면이 석판에 큰 개석을 올려놓은 장방형과 방형 석관묘가 중심이 되고 있는 서단산西團山 문화권이 있다. 이와 같은 중국 동북지방 서단산 문화권의 고분 형태와 한반도의 석총문화는 구조상 동일문화권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문화권의 편년은 약 3천년 전의 청동기 시대이고, 그 주인은, 일부 이설도 있으나, 중국에서 예맥족으로 보고 있다.

결국 내몽골 지방에 포함되는 요서 지역 일원의 홍산문화권에 바탕을 둔 석총문화는 고인돌과 적석총이 집중되어 있는 요동 지역과 아울러 중국 동북지방과 한반도에 분포되어 있는 고인돌과 적석총, 석관묘와 동일한 문화권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석총문화권에서 홍산문화권의 우하량 유적은 객좌喀左 동산취東山嘴 유적과 같이 적석총 묘역의 중심부에서 동서북 세 방향으로 석루장石壘墻(돌담)이 설치돼 있는 구조가 주목된다. 역시 동일 문화권으로 볼 수 있는 요동 강상묘의 경우 막돌로 방사형 돌담을 조성하고 묘지 둘레 역시 원형의 담으로 두르고 있다. 한반도 남쪽 산청의 화계리에 있는, 고구려 장군총 유형의 금관가야 말왕 구형왕仇衡王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총에도 막돌로 쌓은 돌담이 있다. 역시 석총문화권에서 보는 동일 구조의 유적인 것이다.

이와 같은 돌담장의 형성은 흥륭와 부락의 유적에 있는, 선사시대 환호環濠 형태의 부락에서 외부의 공세를 막으려는 방어의 개념에서 발원한 것으로 보인다. 후일 궁성의 건물에서 비롯하여 묘역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에 설치한 해자垓字의 개념에서 이와 같은 돌담이 조성된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중국은 신석기 시대 이후 전통적인 무덤이 장방형 또는 방형 수혈竪穴 토광묘인데 신석기대 말기부터 목관으로 된 장구가 출토되며 대문구大汶口 문화 말기부터 묘광墓壙이 커지면서 광중 4벽에 통나무를 쌓아 올려 천개天蓋를 덮는 형식의 목곽이 조성되었다고 한다. 주대周代에 와서는 관곽제가 사회계층에 따라 여러 겹으로 조성되었다. 이와 같은 전통적 한묘계 토광목곽묘 문화의 영향이 길림시 강남향江南鄕 영안촌永安村에 대규모로 잔존하고 있어 이들 무덤이 부여 사회의 지배층이던 제가諸加의 분묘라는 설까지 있으며, 길림성의 대해맹大海猛 유적을 비롯한 요녕성 서차구西 溝, 길림성 대파향의 노하심둔老河深屯 등의 무덤이 같은 유형이다. 아울러 이러한 목곽묘군은 옛적 한漢의 군현郡縣 지역이었던 평양시 일원에도 소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원 지방의 토광 목곽묘 문화가 중국의 한대漢代를 전후하여 벽돌 무덤에서 석실묘石室墓로 정착되기 전 부여 사회를 통하여 한반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초기 가야 문화권인 대성동 1,2호분에서 통나무를 파서 만든 구유식 목관묘木棺墓가 보이고 또한 4세기 중반 이후 대형 목곽묘木槨墓가 보이며 이러한 목곽묘로의 변천이 이루어지면서 북방계 유목민이 사용한 동복銅鍑이 발견되고, 순장殉葬과 병행하여 목관 일부를 불사르는 풍습이 있었다는 설도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고분 유적은 시베리아 남방 산지 알타이 지방에서 발견되고 있는 쿠루간Kurugan형 적석 목곽묘에서 동일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다. 특히 기원전 6세기를 전후한 소위 스키타 문화기에 산지 알타이 포리쇼이 지방에서 발굴된 파지리크Pazzyryk 고분군에서 또한 그와 동일한 고분의 특징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파지리크형 토석을 기본으로 한 적석 목곽분木槨墳은 후일 신라의 '황남대총皇南大塚 에서 같은 형식이 보이고 있다. 결국 가야지방 고분이 만주의 부여계 문화의 영향을 받아 기본적인 한묘계漢墓系 토광土壙목곽묘와 같이 된 점이 인정되고 있으나, 점차 이와 같은 한묘漢墓의 기본을 벗어나 북방 초원계의 고분으로 알려진 것과 같은 크루간형 고분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천신天神과 지모신地母神의 신앙으로, 흥산 문화권의 흥륭와 유적에서 용과 여신의 모습과 아울러 옥기玉器가 나오고 있는데 이같은 용상龍象은 적석과 같이 토기편土器片에 용문龍紋을 새긴 요하遼河 유역의 사해査海 유적에서도 같은 시대 8천년 전의 신석기 초기의 것으로 발견되고 있다. 중국 학계에서는 이를 그들 전통의 용신龍神 숭배의 발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이는 요서 지방 우하량 유적과 더불어 여신女神에 대한 샤먼 신앙과 관계되고 있다.

본래 퉁구스 토착어에서 유래되었다는, 무술인巫術人이라는 뜻의 샤먼Shaman 신앙은 북아시아를 대표하는 퉁구스 및 고아시아의 종교체계와 함께 독자적이고 전형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다. 또 산림초원지대인 홍산문화권에서는 5천년을 전후한 시대의 것으로 알려진 돈룡豚龍과 옥웅玉熊 · 옥호玉虎 · 옥효玉 등도 출토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한대의 것인 중국 산동성 가상현의 무씨사武氏祠 석실에는 단군 건국사에서 전하는 바와 같은 웅인熊人과 호인虎人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한다. 환웅과 연을 맺었다는 웅녀족熊女族과 관계가 있는 곰 숭배는 일찍부터 시베리아 예니세이강 유역의 미누신스크Minusinsk 지방을 중심으로 시베리아권의 샤먼숭배에 그 발원을 두고 있으며 퉁구스나 고아시아 여러 겨레 사이에 신인동형동종적新人同形同種的Anthrophomorhic 토템Totem 신앙이 널리 분포되어 있고, 이는 곰의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선사 시대에 이와 같이 유사한 종교 현상이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및 남북 아메리카 대륙 등에 분포되고 있었으나 퉁구스 및 고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하는 북아시아에 독자적이고 전형적인 샤머니즘이 홍산문화권을 중심으로 수용되었고 이것이 점차 청동기 시대 이후 한반도에 전파되어 고대 한민족의 민속으로 정착된 것이다. 또한 신석기시대에 한반도에 분포되어 있었고 중원문화와 구별이 되는 것으로 북방계 토기를 상징하는 빗살무늬(즐치문櫛齒紋) 토기土器 및 연속호선문連續弧線紋 · 침사선문沈斜線紋 토기류가 홍산문화권인 적봉시赤峰市 서릉산西稜山 유적과 서수천西水川 유적에서 발견되고 있고, 만리장성 이북에서만 보이는 석핵의 박편으로 된, 석인촉石刃鏃이 중심으로 된 시베리아계 세석기細石器 문화의 특징을 여기에서도 보이고 있다. 요하 유역에는 한반도 중부지방 이남에서 주로 보이는 첨저즐치문尖底櫛齒紋 토기류가 발견되고 있다. 적봉지역 홍산문화권에서는 중원의 신석기 시대 것으로, 배리강裵李崗과 자산磁山에서 발원하여 앙소仰韶문화에 영향을 준 지자형之字形 연속호선문連續弧線紋 계통의 토기도 보여 중원과 북방 초원계 양대 문화권의 혼입混入 현상을 입증하고 있기도 하다.

4. 고대 한민족의 언어와 그 문화권역

문자의 기록이 없던 옛적에 산 고대인의 문화공동체가 뜻하는 하나의 민족과 그들의 사회와 문화를 밝히려는 학문으로 문화인류학을 비롯해 고고학과 언어학 등이 원용되고 있다. 인류문화는 그 발상이 되는 한 지방에서 끊임없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어 유통하는 추세에 따라 민족이 서로 다른 이민집단異民集團이면서 동일한 문화권역에 속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고대 우리 한민족의 언어는 당시 민족 이동이 잦았던 사정으로 변화가 많았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러나 각민족이 사용하는 언어의 줄기에는 큰 변화가 없이 유존遺存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한민족이 사용한 언어는 각 민족과 국가가 미분이던 시대에 있어 그 민족의 정체성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한국어는 알타이어계에 속하는 표음문자表音文字 Phonogram인데 본래 자음과 모음을 합쳐 이루는 하나의 음절音節 문자를 형성하는 성격이 있다고 하나, 그 문자를 분해하여 다음多音으로 환원시켜 성립시킬 수 있는 단음單音 문자의 성격이 강하다고도 한다. 이에 비해 중국의 한자어는 알타이어계와 다른 시노티베트어계Sino-Tibetan Family에 속하여 사물의 모습을 나타내는 회화繪畵 문자 또는 사물의 개념을 표기하는 상형象形 문자에 속한다. 다만 기호를 통한 표의表意 문자로 발전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옛 한자에는 다량의 가차음假借音을 사용하는 표음 방법이 채용되었다. 그러나 알려진 바와 같이 점복占卜의 부호를 귀갑龜甲이나 수골獸骨에 새긴 갑골문자甲骨文字에서 성립된 한자어와 우리말은 구조에도 큰 차이가 있어 근원적으로 다르다.

14면으로 계속

정통육효비전正統六爻秘傳
야학노인 점복전서
野鶴老人占卜全書
기초편 · 응용편 전2권
이아평李我平 감정鑑定 / 야학노인野鶴老人 저著 / 이문휘李文輝 증산增刪
권오달權五達 태로太爐 역주譯註
010-5280-7452e-mail : kod0852@naver.com
도서출판 小康 발행
부산 서구 동대신동 2가 289-6
전화 051)247-9106 팩스 051-248-2176
값 기초편 10,000· 응용편 15,000원